

+ 입법정보

2024년
통권 제42호



계간 세종 의정

| 겨울호 |



환

40만 세종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출범



입법·행정·사법,
‘행정수도 세종’
세종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3부를 갖춘
으로의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세종지방
법원
설치확정





제93회 임시회 개회사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입니다.

가을을 맞아 세종시민이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화합의 자리가 풍성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시작된 2024 세종축제 개막행사에도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셨고, 밝은 얼굴에서 축제의 즐거움은 물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세종시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9월 12일 국회의장 직속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발족한 후 27일에는 우리 시에서 2차 회의가 열리고,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둘러보는 등 국회 세종시대가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5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처리되지 못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도 22대 국회 개원 후 급물살을 타며,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세종시는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현안마다 힘을 모아주신 세종시민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헌신한 시와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만들어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안을 마련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노고도 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수도 완성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힘을 모아 제대로 된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어야 할 시기입니다.

세종시 탄생의 핵심 가치인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행정수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의 뜻을 실현하는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한편, 9월 26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따르면, 30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인 56조 원 보다는 줄었지만, 국가 재정 상황이 심각한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국가 재정의 위기는 곧 지방정부 재정위기이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다시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달에 열릴 제94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2025년도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편성 중입니다.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세입 여건은 악화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재정의 위기는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일회성, 전시성 사업을 비롯해 불필

요한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분야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자구책 마련에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임이 틀림없지만, 현재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시민의 삶과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시민과 지역사회는 물론 의원님들과 폭넓고 긴밀하게 소통하여 합리적인 예산안을 마련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13일간 열리는 제93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 달에 있을 정례회를 앞두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시급하고 중요한 안건이 많은 만큼 어느 때보다 꼼꼼히 살펴주시길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집행부도 적극적인 자세로 안건 심사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제4대 세종시의회 후반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시민들께 말씀드렸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행정수도 완성으로 우리 시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시민의 삶의 질도 이에 걸맞게 향상되고, 세종시에 산다는 것이 큰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 입법정보

계간 세종 의정

| 겨울호



표지이야기

자연이 가져다주는 매서운 추위가 무색할 만큼 사람들의 마음에는 따뜻함이 넘쳐나는 겨울이다. 얼어붙은 땅은 잠들었지만, 그 위로 사람들의 발길이, 입김이, 손길이 서로를 향해 오간다. 마치 성탄절 트리 아래에 놓인 선물처럼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올 한 해 시민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왔다. 하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맞이한 겨울, 쉬지 않고 시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민생 안정'이라는 선물을 꾸려온 세종시의회회원의 발자취를 돌아보자.

2024 통권 제42호

발행일 2024년 12월 11일
발행인 임채성 의장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작부서 홍보기획팀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계간 <세종의정>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Contents



- 04 개회사
- 08 의정포커스
- 10 결의안
- 12 주요안건 처리현황
- 16 의회인터뷰
- 32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소식
 - 행정복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 42 5분 자유발언
- 47 긴급현안질문
- 49 공부하는 의회
- 54 의정주요뉴스
- 58 독자투고
- 59 입법정보
- 74 의회홍보채널 안내

제93회 임시회 폐회, 84건 안건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월 11일 제9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까지 13일간 회기를 진행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회의장 직속 국회세종지사당 건립위원회가 발족하고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우리 세종시는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세입 여건은 악화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 상황도 녹록지 않다”며, “집행부는 일회성, 전시성 사업을 비롯해 불필요한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등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자구책 마련에 힘써주

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현·김충식·김현욱·홍나영·유인호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안신일 의원은 ‘정치행정수도 세종시대에 부합하는 지역 인재 육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상병현 의원은 ‘세종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보임하는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2024



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10월 23일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84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최원석·김효숙·김광운·박란희·유인호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청소년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청소년의 건강관리 및 청소년 활동을 위한 사업을 제안했으며,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한 나들목 설치 추진 필요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0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 등 26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등 14건이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됐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세종지방법원 건립 절차의 조속한 추진'과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월 11일 제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순열 의원은 “현 정부와 세종시가 금강물을 가두고 바뀌나가려고 하는 것은 인공적으로 물을 가둔 관광객의 유희만을 위한 것이다”라며, “세종보 재가동으로 인한 수생태계 훼손을 막고자 한다”며 결의안 채택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감사결과’가 나오자마자 4대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단 15일 만에 세종보 재가동을 결정했다”며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외면한 현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금강의 세종권역을 보호할 세종시마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라는 포장만 화려한 개발에 매몰되어 있다”며 이는 도시미관과 이익이라는 솔깃한 미끼로 시민의 눈을 가리는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금강 개발행위 중단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세종보 재가동 결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인위적으로 금강을 훼손하는 정책 적극 제재 ▲금강의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부 본연 기능의 충실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순열 의원은 “현세대의 편협한 시각으로 훗날 우리 후손들이 치를 혹독한 대가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월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되어 세종시민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에 좌절하지 않고 세종시민이 노력한 결과 2024년 9월 26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미 세종시는 반곡동 771-42번지 일대에 법원부지를 확보하고 있기에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건축공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민의 기대를 모아 건립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했다”며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세종지방법원이 건립되면 세종시는 입법, 행정, 사법의 3부를 두루 갖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고 이는 세종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다는 것이 이번 결의안을 발표하게 된 근거”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결의를 통해 정부가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세종지방법원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할 것 ▲온전한 행정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완성을 위해 세종지방법원 건립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전폭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제93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1차 본회의 (2024. 10. 11.)

소 관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비 고
본회의	제1항	정치행정수도 세종시대에 부합하는 지역 인재 육성 및 정주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안신일 의원 외 3명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	상병현 의원 외 10명
	제3항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제4항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제5항	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수정가결	이순열 의원 외 12명
본회의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	의장
	제8항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의장
	제9항	(재)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의 건	-	의장
	제10항	휴회의 건(2024.10.12.~10.22./11일간)	-	의장
	제11항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동의안	-	김충식 의원 외 3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시장

2차 본회의 (2024. 10. 23.)

소 관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본회의	제1항	정치행정수도 세종시대에 부합하는 지역 인재 육성 및 정주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
운영위원회	제3항	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행정복지위원회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5항	2025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6항	2025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7항	202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소 관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행정복지 위원회	제8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센터 운영 공공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12항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결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6항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17항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18항	지역 웹툰캠퍼스 운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원안가결
	제19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20항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2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	원안가결
	제24항	세종여성플라자 운영 사무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	원안가결
	제25항	세종 청소년 창조문화 육성 지원 사업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	원안가결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원안가결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소 관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행정복지 위원회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원안가결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신 및 가임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44항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산업건설 위원회	제45항	2025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46항	2025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특구 육성 및 운영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48항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원안가결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모빌리티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52항		2025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53항		세종기업 점프업 육성 지원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원안가결	
제54항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원안가결	
제55항		국내판로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원안가결	
제56항		2025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57항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원안가결	
제58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소 관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산업건설 위원회	제59항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원안가결
	제60항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61항	세종특별자치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62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63항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64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65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66항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67항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원안가결
	제68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69항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70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교육안전 위원회	제7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제72항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73항		세종창업체험교육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원안가결
제74항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원)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75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76항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7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7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7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8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8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8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8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84항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세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 견인하는 운영위가 될 것

김영현 운영위원장

가을의 끝자락, 추위를 앞둔 스산한 날씨가 깊어질 무렵 제 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영현 의원을 만났다. 김 위원장은 한파가 예상되지만, 세종시가 따뜻한 겨울을 나길 소망한다며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열린 자세로 소통하며,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의회운영위원장은 시민의 안락함과 더불어 세종시의회의 ‘안방살림’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전하는 그의 목소리에서 희망찬 겨울을 들어보자.

1 제4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소감은?

우선,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이번 제4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맡겨 주신 시민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운영위원장으로 선택받게 되어 기쁘기도 하지만, 의회 운영을 사무적으로 총괄해야 하는 중책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짧지만,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중지를 모아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열린 자세로 소통하며,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상임위원회로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3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우리 의회에 등록된 2개의 교섭단체 대표님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는 세종시의회의 안방 살림을 책임

지고 의장단과 함께 의원들 간, 그리고 의원들과 집행부 간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균형 잡힌 시정을 이루도록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물밑 지원을 하고 있다.

3 하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운영 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먼저 내부적으로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 시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뤄주신 청렴문화 실천 방안의 일환인 '갑질 조례' 시행에 심혈을 기울여 우리 시의회의 청렴도가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도록 의회 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외적으로는 이번 4대 후반기가 국회세종지사당, 대통령집무실 등 행정수도 완성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집행부와의 건강한 관계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의회' 출범 및 조기 정착에 미중물 역할을 다하겠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가균형발전 저해와 지역소멸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추진되는 만큼, 올해 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순조로운 출발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4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국가핵심 정책사업 추진을 선도해 나가겠다.

4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준비는?

그동안 지방자치는 시민이 주인 되는 '시민주권주의' 채택으로 진일보하였으나, 본질적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적 감독·통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다. 여기에 국민적 여론은 더 나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앙정치는 여전히 권한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기대하고 있지만, 후속 입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 자치분권 및 지방의회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기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아는 만큼 잘할 수 있다”고 한다. 시민 여러분의 정책적 목소리가 메아리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의 기초가 되고, 나아가 '자치분권 실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열린 의회 건설'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5 여소야대, 여야 협치가 필요한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지난 4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은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의원 간 견해차로 인해 내부적으로 협치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집행부와의 관계도 초선 의원들이 다수인 우리 의회 구조에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긴장감이 있었다고 본다.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따라서 집행부와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

하는 생산적 긴장 관계를 형성해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정 환경 변화를 위해 양당 체제의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조화를 이루나가며 공통의 목표인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6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된 의정활동이 눈에 띈다.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총 8,196건 발생했다. 2021년 5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고, 운전면허 소지 의무화, 안전모 착용, 승차 인원 제한 등을 규정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최고 속도제한, 대여사업자에 대한 안전 의무 부과, 무단 방치에 대한 처분 근거, 지자체의 시민 안전 의식 제고 방안 등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

동장치 사업은 위축되고 있고,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불만 민원은 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사각지대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업무의 총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7

세종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최근 세종시 세수 부족과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불편함과 걱정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시 예산에 담긴 모든 사업이 시민들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의회도 의원도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했으면 한다.

시의회가 활력을 가지려면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시

민을 주인으로 섬기고자 격려부터 쓴소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소통하겠다. 아울러 시민분들의 시정 적극 참여 또한 당부드린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께 '행정수도 완성'으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시민 모두가 매일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정치를 꿈꾸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소성취대小聲取大’, 지난봄 분지 통권 제39호를 통해 만났던 김현미 의원의 정치철학이었다. 작은 소리를 크게 듣기 위해 부단히 힘써온 김 의원은 이제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을 거쳐 그 뜻을 더욱더 크게 펼치기 위해 행정복지위원장이라는 중임을 맡게 됐다. 가을비가 내린 직후, 11월달지 않게 그의 정치철학만큼 따스한 날 만난 김현미 위원장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성취대에서 나아가 ‘시민과 함께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하겠노라 다시금 다짐했다. 김 위원장이 ‘시민의 세종’을 위해 나아갈 길, 그 나침반을 들여다보자.

1 제4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중책을 맡겨 주신 시민 여러분과 임채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위원장으로 보낸 첫 3주 동안은 하루 정도를 제외하고는 매일 출퇴근하며 간담회 참석, 업무보고 및 사안 검토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를 거치며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살폈던 경험의 연속선상으로서 세종시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의 중임을 맡게 되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2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은 사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먼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개소를 꼽고 싶다. 세종충남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지난해 4월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 지정 통보를 받고 4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됐다. 소아·청소년 응급환자를 위한 전용 시설로, 그동안 집행부 및 세종충남대병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아응급환자 전문진료체계 구축 필요성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해 온 결과물이다. 다만,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꼭 필요함에도, 올해 시의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 예산이 줄어들어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

고 있다.

또 한 가지 최근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장한 세종문화예술회관 재개관 사업이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추경 예산 12억 원을 확보해 추진한 사업으로, 국비 12억 원과 매칭하여 노후시설과 무대장비를 정비하는 공사를 했다. 세종문화예술회관 재개관을 통해 콘서트, 클래식,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를 열어 원도심 문화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소담동에 싱싱장터 4호점 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얼마 전 싱싱장터 4호점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싱싱장터 4호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사업은 반드시 끌고 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집행부와 중앙부처를 오가며 사방으로 뛰어다닌 결과 어느덧 개장을 앞두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작년 개장 예정이었던 싱싱장터 4호점 개장이 선행공사의 지연에 따라 오는 10월로 연기된 상태다. 이에 싱싱장터 4호점 입점 대기 농가의 판로 문제와 시민분들의 불

편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소담동주민센터 1층에 찾아가는 직매장을 지난 6월부터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준공 후 충분한 하자처리와 시범운영을 거쳐 인수할 수 있도록 집행부 및 행복청, LH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린다. 안전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싱싱장터 4호점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4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는 세종시 주요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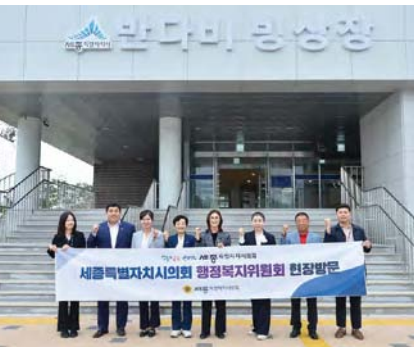
우선 국회세종의사당의 신속한 건립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행정절차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과 관련된 집행부 구성, 자치법규 제정 및 광역의회 구성 등의 현안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세종시가 시급하게 주목해야 할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방향성이 하나의 과제에 치중하는 면면을 보여 아쉽다. 일례로, 현재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치를 체육관과 실내 수영장 건립 계획이 최종 무산된 상황이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중 선수촌 조성, 폐막식 및 탁구 경기 준비 등 당면한 현안들을 빠짐없이 챙

겨 세종시를 세계에 알릴 국제스포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해야 한다.

한편, 21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라 아쉽게 무산됐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률안이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이에 세종지방법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동시에, 세종시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약자 지원, 의료시스템 확충 등 시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민생 현안들을 놓치지 않고 챙겨나가야 한다.



5 후반기에 가장 역점을 둘 사항은 무엇인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일은 오로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의정활동을 하려 노력하는 자세일 것이다.

더불어, 동료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과정에서 소관 분야의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집행부 행정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의 역할 또한 충실히 해나가는 행정복지위원회를 만드려고 한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재정 상황에 놓여 있고 세종시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 할 기회로 삼아 공약사업 및 여러 정책사업 등을 다시 한번 되짚어 '불요불급, 필요필급'을 헤아려야 한다. 또한 공무원들이 적법하지 못한 행정에 내몰리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시의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혈세 낭비를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6 반다비빙상장, 공동캠퍼스 등 지역 스포츠 활성화와 인재 육성 관련 현안도 많다. 이와 관련해 행정복지위원회가 수행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제93회 임시회와 관련해 지난 10월 15일, 12월 말 개장을 앞둔 반다비빙상장과 지난 9월 개교한 세종공동캠퍼스를 다녀왔다. 장애인형 빙상장으로 건설된 반다비빙상장은 세종시에 만들어질 또 하나의 새로운 체육 여가시설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되었다. 세종공동캠퍼스는 국내 최초의 공유형 캠퍼스로서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 충남대 의과대학, 충북대 수의학과, KDI 국제정책대학원 및 한밭대학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학과가 입주해 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반다비빙상장 개장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살피고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개장 이후에도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챙길 예정이다. 또한 세종공동캠퍼스가 교육·연구에 있어 다양한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거듭나 전국적인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및 공동캠퍼스 운영법인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원하도록 하겠다.

7 세종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올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세종이 뽑혔다. 이 결과는 세종을 그러한 곳으로 만들고자 했던 시민 여러분의 행동과 목소리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행정복지위원회는 세종시 앞에 놓인 많은 현안에 있어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과 함께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대한민국 행정

수도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를 위해 행정복지위원회는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동시에 바라보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 개인적으로는 '건강한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세종시를 더 살기 좋은, 또 세계에서 주목하는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공정과 소통, 포용의 리더십을 꿈꾸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

지난 7월,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재형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설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혁신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힘쓰겠다는 그의 목소리에서는 짙은 진심이 전해졌다. 11월 중순, 계간 <세종 의정>은 김 위원장이 전했던 포부의 자세한 방법론을 청해 봤다.

1 제4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로 당선된 소감은?

저에게 제4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세종시민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종시의 경제, 건설, 교통, 환경, 농업 등 시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분야의 정책이 시민의 뜻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계획되고 집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오직 시민들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포부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의정에 임함에 있어 공정과 소통, 포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다가가고,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여 시민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지고 윤택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2 지역 간 균형발전이 시급한 실정인데,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에서 읍면동 간 불균형 해소의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종시법 제12조에서도 시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투자하도록 하고 5년 단위의 '균형발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대전세종연구원과 함께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 및 지역별 간담회를 거쳐 2023년 12월에 '제3차 균형발전기본계획(2024년~2028년)'을 마련했다.

제3차 균형발전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 간 불균형 진단 결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수 ▲의료시설 병상수 ▲노후건

물 및 빈집 비율 ▲공공체육시설 수 등이 지역간 큰 격차의 불균형 지표로 나타났다.

따라서, 균형발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 재정이 지역간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하되, 우리시 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을 기능적 절대적 균등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닌, 각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이 올라가고, 주거환경 서비스 격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지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상이 있다면?

실질적인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선순환적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유망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적기 준공(2026년 9월)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들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청년임대주택 확대 등 정주여건 개선 방안 모색에도 주력하겠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5+1미래전략산업*을 시정4기 역점 사항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를 기회발전특구·교

육발전특구와 연계하여 우리시 성장 동력의 발판으로 다져 시민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도록 산업건설위원회도 총력을 다할 것이다.

* ① 정보보호, ② 미래모빌리티, ③ 방송·영상미디어, ④ 디지털콘텐츠, ⑤ 디지털헬스케어, ⑥ 양자산업

아울러, 이러한 사업들이 연계성 있게 추진되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대안을 제시하겠다.

4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는 산업건설분야 세종시 주요 현안 및 하반기 의회에서 추진할 중요사업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해 기반시설 마련 및 자족기능 확충 등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위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

먼저, 우리시 접근성 강화 및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KTX 세종역 신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추진으로 도시 경쟁력 및 시민 이동편의 제고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도시성장 산업기반 마련 및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보상대책위'와 지속하여 소통하며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산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추진계획인 '이음패스(대중교통 월 정액권)' 사업도 당초 계획한 대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계획이다.

5 세종시 자족도시 달성을 위한 시의 정책을 평가한다면?

우리 시는 자족도시 달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유례없는 건축재정 상황 속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는 실정이다.

현 4대 의회는 여소야대 의원 구성 상황에서 주요정책 추진 시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집행부가 정책구상 단계부터 우리 의회와 사전 협의와 소통을 하지 않았기에 비롯한 것

이라 생각한다.

집행부에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우리 산건위 위원들과 함께 자주 소통하고 대안을 찾아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당부한다.

6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세종시의회와 세종시는 오직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언제나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는 방향으로 시정을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서로 지혜를 모아 협의하며 소통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투명하게 정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집행부에서 정책 하나하나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항상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단 한푼도 낭비되는 예산 없이 시민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린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7인의 위원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본인의 건강도 함께 챙겨봐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7 세종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시에는 KTX 세종역 신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설치 등 긴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현안 또한 많다. 정치권과 집행부, 그리고 시민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진력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더불어 우리 시의회의 동력은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라고 생각한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여러

분계서도 언제나 열린의회와 소통해 주시고 의정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잘된 점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겪었던 경험과 아쉬웠던 점을 거울삼아 위원 모두가 연구하고 변화하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앞서 나가는 세종시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선도적 교육 체계가 행정수도의 기반 다지길...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기 위한 기반 조건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제각각의 이론을 내놓는다. 그것이 정치라고 말하는 이도, 경제라고 확신하는 이도, 문화와 예술이라 진단하는 이도 있다. 신임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은 행정수도 세종이 가질 위상의 근거를 바로 '교육'에서 찾았다.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행정수도로 굳게 서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전한 윤 위원장, 그가 그리는 '선도적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1 제4대 후반기 교육안전위원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평소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울타리가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육안전위원장이라는 소임을 주신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항상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학생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학교는 과거 학생 교육기관으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 오늘날 돌봄교실, 방과후활동까지 교육의 영역을 넓혀 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는 미

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학교의 역할이 중차대함을 방증하는 것으로, 각 교육기관은 이에 발맞춰 늘봄교실, 유보통합, 디지털 전환 등 미래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러한 도전적 시도가 교육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하여 세종시 교육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데 일조하는 역할을 자처하는 곳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교육안전위원회로 시민들께 다가가려 한다.



2 세종시 안전과 세종교육의 주요 현안은?

안전분야의 현안은 자연재난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최근 발생하는 자연재난을 극단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난 양상은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점점 더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물이 커지고 높아짐에 따라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 인명피해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동안 여름철 수해로 인한 시설 피해, 겨울철 교량위 차량 연쇄추돌, 목욕탕 감전사고 등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따라서 공적 영역에서 관련 시설의 보완문제, 시민 안전

의식 고취, 사전 예방과 점검을 중시할 수 있는 업무들을 주문하겠다. 특히 세종시 전반의 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겠다. 또 앞으로 이러한 재난을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안전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운영·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교육분야는 우선, 학교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관심이 많다. 새로운 기술을 선도적으로 접목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맞춤형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이 공교육의 질을 제

고하여 기존의 높은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학생의 멈춤 없는 성장을 지원하는 방학 중 중식 지원 역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다. 올해 여름방학에 협력학교 9곳의 운영을 거쳐 겨울방학에는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이다. 방학 중 공교육의 손이 닿기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단절 없는 성장의 시간을 제공할 발판이 될 것이다.

3 세종시 안전에 대해 시에서 잘하고 있는점과 아쉬운 점을 하나씩 꼽는다면?

잘하고 있는 점은 이태원 사고 이후 국가의 책임에 대해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이에 맞춰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시가 시민안심보험 확대 운영을 통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받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보험 항목을 추가하는 등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은 칭찬할 만하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의용소방대 등 민간 단체들을 통해 많은 시민분이 관내 안전을 위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시민 한분 한분께서 주변에 안전 위험요소 등이 보이면 신속하게 신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집행부와 함께 시민 여러분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효

끝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유보통합은 최근 교육계의 화두다. 관련 법령 개정, 기관 간 업무 이관, 구성원 합의 등 많은 어려움이 산재하지만 시행 시기가 1년 연기된 만큼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세밀하게 챙겨볼 예정이다.

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쉬운 점은 세종시가 신생도시이다 보니 대부분 공공시설이 신축이어서 안전에 대해 둔감한 경우가 많다. 시민이든 공무원이든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세종시 도농 간에 시설 격차가 있어 이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도심과 농촌의 여건과 주변 환경은 분명 차이가 있음을 고려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점검하는 관리시스템을 좀 더 촘촘히 마련해줬으면 한다. 특히 유관기관 간 소통과 협업은 물론 담당 공무원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다.



4 교안위 의원 5명 중 여야 비율이 2대3이다. 원만한 운영을 위한 방안은?

교육의 문제는 여야, 진보와 보수의 진영논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직 학생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안전위원회도 이점에 초점을 맞춰 운영할 것이다. 최근 여러 가지 교육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준비 상황 점검은 물론 학교, 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또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 5명), 직원들(전문위원 포함 7명)과 늘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내실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겠다.

5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세종시 출범 이후 어느덧 12년의 세월이 훌쩍 흘렀다. 그동안 학교 신설, 문화·복지·체육 건립 등 도시는 급성장했으나, 그 이면에는 도농시설 격차와 같은 시민분들이 겪어야 했던 많은 불편과 어려움, 그리고 갈등이 공존했다. 그럼에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주인의식으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서로 양보해 주신 학부모님과 시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발전을 거듭한 현재의 세종시가 가능했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행정수도로 굳게 서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 학부모님과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세종교육의 성장이 곧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이끈다는 자부심으로 더 배려하는, 성숙한 열린 마음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

제4대 하반기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소관 상임위 역할은 물론 일선 현장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학부모님,

시민분들께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더불어 학부모님과 시민분들께서 주시는 이성적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경청하여 세종시정과 교육행정이 더욱 발전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행정복지 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 위원



상병헌 위원



여미진 위원



이순열 위원



홍나영 위원



반다비빙상장, 세종공동캠퍼스 현장방문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제93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15일, 위원회 소관 시설과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10월 15일 오전 현장방문 첫 일정으로 반다비빙상장을 찾은 위원들은 소관 부서 담당자 및 수탁사(메이저스포츠산업)로부터 시설 현황 및 빙상장 개장 준비 상황 등 주요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이에 따른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세종특별자치시 최초 장애인형 빙상장으로서 시설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개장 시기에 맞추어 빙상장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세종시민 우선 빙상장 인력 채용 ▲균형 있는 이용 시간 분배 ▲타 시도 현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적정한 이용 요금 책정 등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이어 세종공동캠퍼스로 이동해 운영법인 관계자에게 개교 이후 운영 상황과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한 후, 학술문화지원센터, 국립한밭대학교, 학생회관 등을 돌아보며 지원 인프라에 관해 미흡한 점은 없는지 점검했다. 이와 함께 ▲세종공동캠퍼스 내 모든 구성원을 두루 고려한 정주 요건 조성 ▲셔틀버스 증차 등 교통편의 방안 마련 ▲학생식당 급식 만족도 제고 등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제4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현장방문 일정을 마치며 김현미 위원장은 “반다비빙상장의 적기 개장과 세종공동캠퍼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달라”고 전하며, “지역 내 스포츠 활성화와 인재 육성의 중요 거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지원 방안에 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안건 41건 심사 및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제93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6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41건(조례안 23건, 동의안 18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조례안 23건 중 21건이 원안가결되었고, 2건이 수정가결되었으며, 동의안은 18건 중 1건의 부결을 제외하고 모두 원안가결됐다.

한편, 수정가결된 2건과 관련, 지난 제9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 대상을 시민으로 정비하고 이용료 기준 또한 정비해 수정가결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문을 명확하게 표현하여 수정가결되었다.

또한,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면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었다.



산업건설 위원회



김재형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



김광운 위원



김학서 위원



김현옥 위원



김효숙 위원



안신일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28건 심사 의결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3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6일에 조례안 14건, 동의안 14건 총 28건을 심사했다. 이 중 23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나머지 2건은 보류하여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회장은 “조례가 제 개정되면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시민들의 기대감은 매우 클 것”이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하위 규정 및 세부 계획 등을 제때 마련하여 각종 지원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지회와의 간담회 개최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21일 시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지회(지회장 이윤희)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지회는 지난 3월 출범하여 지역 여성경제인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협회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김재형 위원장은 "여성경제인분들의 노력으로 기업 운영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부분에서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성경제인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당위성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 등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소통하겠다"면서 시민과 기업인,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관심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북부권 주요시설 현장방문 실시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3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22일 북부권에 위치한 주요 시설들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재형 위원장과 최원석 부위원장을 비롯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정문화센터를 시작으로 전의 이아기센터 및 모목플랫폼, 세종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차례로 방문했다.

소정문화센터에서 참석자들은 운영상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어 시설 운영사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역별 특화사업을 구상추진하고 있으나,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자생능력이 갖춰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시 예산 확보를 통한 운영비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마지막 방문지는 관내 유일한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위원들은 "세종의 유기동물 입양률이 전국 2위 수준으로 높은 편임을 확인하였으며,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센터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안전 위원회



윤지성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



김동빈 위원



박란희 위원



유인호 위원



제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주민조례청구 등 14건 심사

교육안전위원회는 10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조례청구로 회부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은 1년여의 청구인서명 확보 및 유효성 검증을 거쳐 지난달 6일 교육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조례의 주요 취지는 교원, 학생, 보호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상별 책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주체가 상호 존중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교육안전위원회는, 조례의 책임과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으로 제명을 수정했고, 그동안 개정된 상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했다.

더불어, 상위법령의 적용 사례에 준하여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을 적용하였으며, 용어를 정리하고 어색한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번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되어, 23일 열리는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학교급식 관계기관과 간담회 실시

교육안전위원회는 10월 16일 축산물품질평가원 대전충남지원, 세종시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과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 김동빈, 박란희 유인호 위원이 참석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학교급식 축산물 관리에 대한 제안 사항을 청취하였으며,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현황을 참고하여 앞으로 업무협력 등 관계기관과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임채성 의장은 “축산물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품질 관리는 더욱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세종시 학교급식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급식이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전체험교육원과 나루초 현장방문

교육안전위원회는 10월 29일 세종시 관내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과 늘봄학교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안전체험교육원과 나루초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교육안전위원회는 ▲안전체험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 강화 및 어린이집 원생들의 이용률 확대 ▲안전체험버스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강구 ▲늘봄학교 운영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부담 최소화 및 지원 대책 마련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학교,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을 주문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어릴 때부터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더욱더 많은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김재형 위원장



유인호 부위원장



김동빈 위원



김영현 위원



김현옥 위원



김효숙 위원



박란희 위원



윤지성 위원



이현정 위원

행복도시 제9차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 청취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이하 '인수특위')는 9월 30일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이 인수특위 위원장으로, 현재 인수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유인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새롭게 선임되었다.

아울러 인수특위는 도시주택국으로부터 「행복도시 제9차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복도시 제9차 공공시설물 인수 대상은 LH에서 조성한 4-2생활권(집현동)과 6-4생활권(해밀동)이며, 기타 시설로 삼성천 상류와 1·2·3·4-1·S-1생활권 잔여지가 있다.

한편, 김재형 위원장 체제로 정비된 제5기 인수특위는 안정적인 공공 시설물 이관과 품격 있는 행복도시 완성을 목표로 2026년 6월 30일까지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이어갈 예정이다.

시민참여점검반과 함께 꼼꼼한 사전 점검 실시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는 10월 18일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 점검반과 함께 내년 1월 시민 개방을 앞둔 소담동 3생활권 환승주차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과정에서 ▲주차장 내부로 빗물 유입 우려 ▲옥상층 곳곳에 빗물 고임 발생 ▲실외기 설치 위치(차량 출입구 옆) 부적절 ▲내부 기둥 표면 마감 보강 필요 ▲CCTV 사각지대 여부 재점검 필요 등을 지적했으며, 환승주차장 운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집행부와 현장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김재형 공공특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공공시설물 인수 과정을 통해 안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미래전략 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김동빈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



김광운 위원



김충식 위원



김효숙 위원



안신일 위원



여미전 위원



윤지성 위원

미래전략수도완성 활동계획 변경안 채택 및 추진현황 점검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는 9월 30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미래전략수도완성을 위한 활동계획 변경안을 채택하고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하여 활동 업무를 조정하고, 활동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 활동 범위와 구성 목적을 재설정한 '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 구성 변경 결의안'이 지난 6월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활동 계획을 변경했다.

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X 세종역 신설 ▲광역철도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및 충청권 공조 강화 등 미래전략수도 완성 여론이 조성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 유치를 위해 서울 연세암병원 방문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는 10월 28일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한 연세암병원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이날 미래특위 김동빈 위원장, 김충식 의원과 이승원 경제부시장, 투자유치단장 등 관계 공무원들은 함께 중입자치료센터를 찾아 금융업 센터장으로부터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가속기 치료 과정 등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면밀히 살폈다.

김동빈 미래특위 위원장은 "미래전략수도완성을 위한 기반 시설로 중입자가속기 암치료 센터를 유치하여 중부권 의료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선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연세대 암병동 운영 사례를 면밀히 살펴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펴겠다"고 말했다.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김현옥 위원장



윤지성 부위원장



김영현 위원



김충식 위원



김현미 위원



안신일 위원



이현정 위원

인천 청라지구 대형 음식물 감량기 운용현황 및 집하장 관리 실태 실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크린넷 특위')'는 9월 26일 청라 힐데스하임 주택단지에서 설치된 대형 음식물 감량기 운용사례를 듣고 인천 서구청 관할 3집하장 및 자원순환센터를 각각 방문했다.

이날 크린넷 특위에서는 ▲인천 서구청의 크린넷 문제 해결방법 등을 우리 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요청 ▲효과성이 입증된 대형 음식물 감량기의 연차별 설치 및 보급 예산확보 등 검토 필요 ▲크린넷 A/S전담팀 설치 필요성 등 제안 ▲세종시의 종합대책 마련 촉구 등을 당부했다.

김현옥 위원장은 “오늘 인천 청라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운영사례를 통해 우리시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기라며, 앞으로 지역사회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세종시 크린넷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세종 관내 집하장 현장방문

크린넷 특위는 11월 4일 세종시 관내 크린넷 시설인 5, 12집하장을 각각 방문했다. 참석자들은 방문지에서 현재 1개 또는 2개의 관로로 운영하는 집하장 시설을 견학하고 각각의 장단점과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세종시에 설치된 집하장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크린넷 특위에서는 ▲세종시 크린넷 운영상 나타난 문제 해결방법 대책 마련 요청 ▲집하장 악취 발생 등 문제 해결 전까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 강구 ▲크린넷 하자 보수를 위한 LH 등 관련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 필요 ▲향후 크린넷의 관리 방향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옥 위원장은 “앞으로 세종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운영상 나타난 크린넷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당초 설계와 시공을 맡은 기관에서 책임감을 갖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박란희 위원장 안신일 부위원장



김재형 위원



김충식 위원



김현미 위원



김효숙 위원



여미전 위원



유인호 위원



윤지성 위원



이순열 위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월 25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행정수도 특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박란희 의원, 부위원장으로 안신일 의원을 선출했다.

이번 행정수도 특위는 박란희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김현미, 여미전, 이순열, 김재형, 김효숙,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특위의 활동 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들은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한 핵심 과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행정수도 특위는 세종시 출범 이후 지연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법원을 비롯한 주요 기관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개편을 통해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행정수도 특위는 지난 11월 8일 제2차 회의를 열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과제와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활동 계획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조기 건립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시민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들은 세종에 건설될 국회의사당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여의도 국회 방문 계획을 세우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홍보 활동에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충청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할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다.

박란희 위원장은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자리잡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지방법원의 조속한 설치가 필수적”이라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현 의원
반곡동,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아동친화도시 포기하나...” 시립어린이도서관 재추진 촉구

김영현 의원은 세종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재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6,988명의 시민이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며, 이 중 약 90%의 시민이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로부터 국비 19억 8천3백만 원을 확보하고 설계 공모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문제로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사업이 갑작스럽게 중단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재정 악화 이유로 쉽게 중단되는 것은 세종시가 아동친화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영현 의원은 “세종시가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꿈 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조속히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충식 의원
조치원읍, 국민의힘



“지역 특성 살린 조치원 원도심 활성화 방안 필요”

김충식 의원은 “지역 특성과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탄생한 도시지만 정작 내부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하고 있다”며, “2013년 124,615명이었던 세종시 인구는 올해 9월 기준 395,652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조치원 인구는 약 6천 명이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시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모델이 되려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원도심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치원 관광산업 육성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콘텐츠 코리아 랩 설치 ▲주차공간 확충 등의 전략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충식 의원은 “원도심 조치원의 활성화에 시가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통해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현옥 의원
새롬동, 더불어민주당



‘잇따른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 대책 촉구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 기후에 따른 폭염으로 공동주택 내 실외기 화재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세종시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공동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관련 법규 정비 전이라도 세종시민의 주거 안전을 위해 조례 제정 또는 공동주택 건축 심의 시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달라”고 전했다. 나아가 일정 주기마다 에어컨 실외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에어컨 실외기 관리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주민 안전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으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세종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홍나영 의원
비례대표, 국민의힘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통한 세종시 발전 주장

홍나영 의원은 정원도시를 통한 세종형 새마을운동으로 도시를 발전시키자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시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 전액 삭감 의결된 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무산된 결정은 세종시 긍정적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통한 도시 관광자원은 도시 기반 요소로 필수적이라고 전하며,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시민 주도형 생활환경 정비, 마을빈집 정비 등의 활동으로 세종시 전역을 아름다운 마을 정원으로 조성하는 세종형 새마을운동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6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세종시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다. “박람회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다시 한번 호소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광운 의원
조치원읍, 국민의힘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세종 미래먹거리’ 확보 총력

김광운 의원은 미래도시 세종의 경쟁력을 좌우할 세종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김광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족기능 확충, 지역간 균형발전, 미래수도로서 위상제고, 기후위기 대비 등 세종시의 과제를 풀어갈 3가지 핵심사업으로 구도심 복합쇼핑몰 유치와 한글문화수도 조성,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을 강조했다.

특히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세종시 출범 후 첫 국제행사로서 세종시민들의 자부심과 열정, 응집력을 보여줄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종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세종시가 가진 젊은 인구, 세종대왕과 한글이라는 문화적 자산, 풍부한 정원 환경 등 훌륭한 기반들이 다음 세대 세종의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 산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현미 의원
소담동,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경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이대로 안 된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도심 경관을 저해하고 시민 안전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의 폐해를 지적했다.

최근 세종시 내의 불법 게시 현수막은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체구가 작은 어린이에게는 이륜차나 킥보드 등 이동하는 물체를 볼 수 없게 현수막이 시야를 가려 어린이 안전에 특히 위협이 된다.

김 의원은 “세종시에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있음에도 특정 단체가 도로 펜스나 성장이 불완전한 가로수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한다”고 세종시에서 미온적으로 단속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공정하고 엄중하게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가 먼 미래의 정원보다 가까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전했다. 더불어 그 첫걸음은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 시각공해가 아닌 깨끗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정치혐오를 불러오는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불법 게시 현수막을 정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5분 발언을 마쳤다.



김효숙 의원
나성동, 더불어민주당



“나성동 백화점 부지 개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김효숙 의원은 ‘백화점 등 쇼핑시설 유치’를 위한 세종시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전 유성에 입점 계획을 알린 스타필드 빌리지를 언급하며 “나성동 백화점 예정부지가 수년간 풀꽃과 주차장으로 채워져 있는 사이 상가는 심각한 공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시민들은 원정 소비를 계속하고 있다. 행복청에서 추진한 용역은 실현되지 못했고, 대응을 위해 발족한 협의체(행복도시 도시기능 협의체)마저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동탄역 롯데백화점과 같은 민간 복합개발 및 터미널 등 교통시설 거점기능 제공으로 기업에 유인책을 제공함과 동시에 현지 법인화 유도를 통한 대규모 세수 확보를 제안했다.

또한 ‘한국형 화이트존’과 같은 도시계획 규제를 최소화한 고밀도 복합단지 조성으로 인구수 부족이라는 사업성을 보완하고, 인천 송도 사례와 같이 단계별 사업을 시행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할 방안도 덧붙여 제시했다.



박란희 의원
다정동,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재정 현황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 재정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한 건전재정의 발판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박란희 의원은 “전년대비 채무가 35억원 감소했음에도 채무 비율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월 17일 열린 최민호 시장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에 반박하며, 2023년에 통합안정화기금의 대량 유입에 따른 예산이 증가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약 1.35% 감소했으나, 2024년 말 채무 잔액은 약 382억원이나 증가했음을 설명했다.

또한 세종시는 지방채 4,065억 원과 통합안정화기금의 예수금 3,968억 원까지 총 8천억 이상의 빚을 갚아야 하는 역대 최대치의 재정난에 직면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민호 시장의 임기 중인 작년 11월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 건립비가 전액 국비에서 세종시 50% 부담으로 변경되어, 최소 1,500억에 달하는 신규 재정을 감당해야 하는 실정임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현실을 직시한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
보람동, 더불어민주당



“기초학력·대입 지원 공교육비 확대 시급”

유인호 의원은 “기초학력 증진 및 대입 지도 역량과 관련된 공교육비 지출이 조속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중학교 3학년 관외 전출 인구의 꾸준한 증가세(2020년 대비 2023년 56.7% 증가)를 근거로 교육 경쟁력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대입 지도를 위한 교육청 예산이 지난해부터 각 학교로 배정돼 예산 집행의 적시성과 형평성, 성과 측정에 미흡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도 냈다.

유 의원은 “세종시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285만원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일부 집행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통계적 오류를 고려하더라도 기초학력 증진 및 대입 지도 역량과 관련된 공교육비 지출이 조속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력 제고와 대입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는 ▲대입 지도 지원 예산의 적정성·효율성 평가 및 예산 집행 가능 항목 구체화 ▲저연차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연구 및 교류 지원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 대입지원관 확대가 언급됐다.



최원석 의원
도담동, 국민의힘



“주민 공간 및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관심 필요”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방축천 상류 지역의 수풀은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도담동에 있는 보행교는 상부의 포장이 다 벗겨져 도시 미관을 해침은 물론, 보행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6생활권 택지 개발에 따른 토사 유입으로 인해 수중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하천 바닥도 높아져 비가 조금만 와도 하천이 보도를 침범하는 상황이다.

또한 “그러나 세종시에서는 ‘순차적인 개발계획’이라는 명목하에 본격적인 관리를 위해 시의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할 1·2생활권의 정비를 신규생활권 정비 뒤로 미루며 방치하고 있다”라고 도시 정비와 공유재산 관리의 미흡을 지적했다.

끝으로 최원석 의원은 “수변공간과 녹지공원은 인근 주민들에게 쉼 곳을 제공하고, 도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도시 자원이다”라고 전하며 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상병헌 의원
아름동, 더불어민주당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원 설치 필요성 강조

상병헌 의원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부문 예산은 2014년에는 5200억 원, 2019년에는 8300억 원, 2023년에는 1조 1700억 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문체부의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1조 2,800억 원이, 2025년에는 무려 1조 3,000억 원이 콘텐츠 부문만을 위해 정부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원 설치에 세종시가 국책사업에 연계되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지역 내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체계적으로 그려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화콘텐츠 사업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는 대표적 수출 산업이자 서비스산업의 핵심으로 정부 역시 문화콘텐츠 산업의 가치와 문화 확산 역할에 주목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며, “세종시 역시 유망하고 고부가가치를 지닌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고, 세종시의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적 진흥원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정민원취재팀



안신일 의원
장군면·한솔동, 더불어민주당



“지역 인재 채용의 해법, 정치행정수도 세종에서 찾자”

안신일 의원은 “협약형 특성화고 및 리즈(RISE)센터 발전 방향 수립 시 ‘정치행정수도 세종’의 특성·강점을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요 질의 내용으로는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현황 파악 및 청년 일자리 연계 방안 수립 및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여부 ▲국회세종의사당 및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에 따른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규모 파악 필요성 ▲타 지자체 사례에 기반한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방안 및 차별화된 특성화고 대응 전략 수립의 미흡 등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세종시 직업계고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전환 노력과 함께 취업지원센터의 역할 및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심점인 세종 리즈센터의 설치 방식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

안 의원은 “세종테크노파크 내 세종 리즈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고 싶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 혁신 산업을 발굴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리즈센터의 자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순열 의원
도담동·어진동,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청소년정책,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이순열 의원은 최민호 시장과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을 대상으로 세종시 청소년 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이순열 의원은 이영옥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기본법」 등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른 세종시 청소년 활동 진흥, 청소년 복지, 청소년 참여 등 분야별로 시의 청소년 정책을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민호 시장에게 세종시 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이 의원은 먼저 ‘아동·청소년국’을 신설하여 청소년 정책을 강화하거나 문화체육국에 청소년과를 확대, 이관하는 등 조직을 확대, 강화해서 능동적으로 청소년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금강수목원을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매입해서 청소년 수련지구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교육청과 관내 청소년기관이 협업해 세종시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와 지역에서 교과적 내용을 넘어서서 활동하며 사회, 문화적 소양을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일수 인정, 생활기록부 반영 등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상병헌 의원
아름동, 더불어민주당



“가람 IC, 연기휴게소 IC의 조속한 설치 필요”

상병헌 의원은 경제부시장을 상대로 가람 IC 및 연기휴게소 IC 설치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상병헌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광역 교통망 접근성을 높여 기업 이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기업 유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종시 집행부의 광역 교통망 개선을 위한 가람 IC와 연기휴게소 IC 설치 추진 의지를 점검하고 신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상 의원은 2029년 세종시 북부권에 준공되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및 현재 분양입주 중인 다양한 산업단지를 언급하며, 세종시가 기업 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광역 교통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규 생활권 분양 및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발전을 기대할 순 있겠지만,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나아가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세종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라며, “이에 대한 선결과제가 교통망 확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모임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월 28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모임’ 제5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5차 간담회에서는 고려대학교 문화예술융복합콘텐츠센터 김광훈 교수의 연구용역 최종 결과 보고와 이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전략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해 회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발표된 연구용역 결과는 단기·중장기 측면의 세종시 4대 축제 기본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7대 세부 운영 전략 수립에 관한 제언 ▲타지역 사례와 비교한 세종시 문화·예술자원 현황 분석 및 각 축제 핵심 콘텐츠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연구모임 회의 과정에서 도출된 ▲세종축제 프로그램 종류와 수를 조정해 핵심 테마에 집중할 필요성 ▲낙화 및 북송아 축제의 기간, 장소, 진행 시간 등을 지역 상권과 밀접하게 연계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실제 연구 용역에 반영됐다.

아울러 과천 공연예술축제 현장 방문에서 얻은 축제 먹거리, 프로그램 그리고 개최 장소의 접근성 등에 대한 분석 결

과는 세종시 축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됐다.

연구모임 활동을 마무리하며 상병헌 의원은 “적극적으로 연구모임 활동에 임해주시신 김영현, 최원석 의원님을 포함한 모든 회원분과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들을 다각도로 검토해 연구에 함께 녹여내 주신 연구용역 수행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며, “본 연구모임의 활동 결과물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은 9월 26일 세종시의회 의정실에서 제3차 간담회를 열고, '반려동물 공간 조성 방안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김효숙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들은 '민원 발생 가능성, 관련 행정절차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반려동물 공간 조성 방안을 모색할 것'과 '연구모임 활동이 목적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달라'고 용역기관에 요청했다.

특히, '반려동물 공간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창출 노력도 필요하며, 여성·청년 창업자 중심으로 반려동물산업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발하게 토론했다.

연구모임은 이어 11월 7일 제4차 간담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마지막 간담회에서는 '반려동물 공간 조성 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와 반려동물 공간 조성 관련한 집행부의 향후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연구모임 회원별로 반려동물 정책 평가 및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용역 최종 보고에서는 지난 중간 보고회에서 연구모임

회원들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인식 차를 좁히기 위한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대표의원인 박관희 의원은 "연구모임 회원분들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연구모임 시작 시점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우리 연구모임 활동은 오늘 마무리되지만, 반려동물 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 연구모임



'세종 스포노믹스(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 연구모임'은 11월 7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6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연구모임은 지난 5월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6번의 정책연구 개발을 위한 논의를 거쳐 오늘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연구 결과 국가의 스포츠산업 성장지원 등 국내 스포츠산업 전반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세종시는 프로스포츠 발달 환경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성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스포츠 구단의 무리한 유치는 구단의 경영난으로 인해 세종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할 수 있기에 신중한 종목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에 대해 각종 프로스포츠의 '컵 대회'를 유치해 시민들의 스포츠 관람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동시에 종목별 반응에 따라 프로구단 유치를 검토하는 방안, 대규모 경기장이 요구되지 않으면서 국제 및 국내대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나 국제대회 편입 예정 종목을 육성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이번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위한 종합경기장 건립이 어려워진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추가 의견으로 ▲ 각종 클럽스포츠대회 유치 노력 ▲ 국제대회 정식규격을 갖춘 체육 인프라 시설 마련 ▲ 세종시 주관 종목대회 증설 ▲ 스포츠인 육성을 위한 관내 체육시설을 활용한 정식교육 지원 등을 제안했다.

김재형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세종시의 체육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이나 사업적인 부분에서 실천해 갈 부분들을 하나씩 진행을 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이제 안과 밖에서 함께 논의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9월 26일 의회 6층 의정실에서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한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보고된 주요 사항으로는 ▲세종시 자율방범대 현황 및 국내외 사례 ▲세종시 자율방범대 효율성 분석 및 설문조사 분석 ▲세종시 치안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이다.

이어 10월 29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한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지역 안전에 대한 민관 협력의 새로운 치안 모델 개발을 위해 대한지방자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회원들 간 6번의 정책 연구개발 논의와 2번의 현장 방문을 거쳐 오늘 최종 용역보고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연구결과 세종시 치안환경 현황은 자율방범대와 경찰과의 협력이 미흡하고, 경찰관보다 자율방범대원의 체감 안전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치안 참여방안 마련 및 확대

▲지역치안 수요를 반영한 자율방범대 운영 ▲자율방범대 체감 안전도 제고를 위한 조례 정비 ▲세종형 마을치안 공동체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현정 의원은 “이번 연구가 시민들의 치안 의식조사에 기반한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의 최초 모델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연구에서 제안된 자율방범대의 시민순찰대 공동 참여와 치우개선, 마을 치안 공동체 구축 등은 세종시 치안 확보의 초석이 될 것이다. 연구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의 회원 및 관계 직원 13명은 9월 24일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시장을 방문하여, 구도심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한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예산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최근에 추진한 민관 상생 프로젝트와 지역의 상권 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예산시장의 선진적인 축제 및 이벤트 전략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또한, 상설시장과 오일장이 공존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도입하여 상권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끌어낸 점에 대해 주목했다.

더불어 연구모임은 10월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의 제5차 간담회를 개최, 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회를 끝으로 약 4개월간의 연구

모임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5차 간담회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는 ▲ 로컬 콘텐츠타운, 조치원 왕성길 골목상권, 조치원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의 활성화 계획 ▲ 조치원 천변을 개발하여 조치원역과 왕성길, 전통시장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청년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조치원의 지역자산을 이용한 경제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위 내용들은 앞으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충식 대표의원은 연구모임을 마무리하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최종보고회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앞으로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원도심 지역경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의정주요뉴스

2024년 10월 2일

지역 농가에서 농촌 일손 돕기 나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10월 2일 연기면 연기리 고구마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날 세종시의회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 등 30여 명은 일손이 부족한 고구마 농가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고구마 수확에 힘을 보탰다. 봉사 참여자들은 지역 농민들의 어려움과 농업의 소중함을 깊이 체감하고, 농가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회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겼다.

임채성 의장은 “농촌일손돕기는 우리 지역사회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다”라며, “우리 의회는 농업인의 수고를 존중하고 세종시가 농촌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2024년 10월 11일

중국 구이저우성과 체육 교류 협약 체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월 10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중국 구이저우성 인민대표회의 외사교무위원회(위원장 샤오상양) 대표단과 체육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도시의 체육 교류 협약식에는 세종시의회 김현미 행정복지지원장과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외사교무위원회 샤오상양 위원장, 세종시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각 기관의 대표로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세종시와 구이저우성은 향후 체육 관련 프로그램과 행사를 공동 개발 및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 기관이 주최하거나 협찬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에 적극 협력하며, 체육 분야 정보 및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공유 등 우호 교류를 통해 양 기관의 체육 분야 발전에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구이저우성 대표단의 샤오상양 위원장은 협약식에 앞서 진행된 사전 환담에서 세종시의회 차원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양 기관의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세종시의회 대표 관계자들을 공식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2024년 10월 11일

자매도시 불가리아 소피아시 대표단 접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월 11일 의정실에서 세종시와 자매도시 체결을 위해 방한한 불가리아 소피아시 대표단(소피아시 부시장 이반 고이체프)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제91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세종특별자치시-소피아시 자매도시 체결동의안'에 따른 것으로 문화, 경제, 청소년, 교육, 지능형 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국제협력 단계가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격상된 만큼, 이반 고이체프 부시장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것을 계기로 우리 의회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인 소피아시를 방문해 더 넓고 깊은 협력의 기회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반 고이체프 소피아시 디지털 혁신 경제발전 부시장은 “의회 구성과 일처리 방식 등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양 기관의 우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향후 세종시의회 대표단을 초청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2024년 10월 28일

지역사회 교통안전에 기여한 교통 전문 교육 기관 표창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월 28일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한국안전교통공단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 국내 최초로 개소한 체험형 교육기관이다. 해당 기관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운전자들은 4년 동안 약 600명이 체험교육을 이수하였다.

임채성 의장은 “교통안전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4년 10월 29일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 참석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월 29일 충청남도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의장협의회는 '2024년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지원' 등 4개 현안에 대한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지방재정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 개편 촉구 건의안' 등 14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의장협의회는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 개편 촉구 건의안에서 국세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자주성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하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인 지방교부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4년 11월 6일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에서 장려상 수상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월 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하여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추진한 다양한 의정활동과 정책을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좋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의정모니터 활동 사례를 주제로 참가하였다.

해당 사례는 240개 지방자치단체 중 사전심사에서 선정된 상위 9개 사례에 선정되어 11월 6일 결선에 참가하였고 최종적으로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회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11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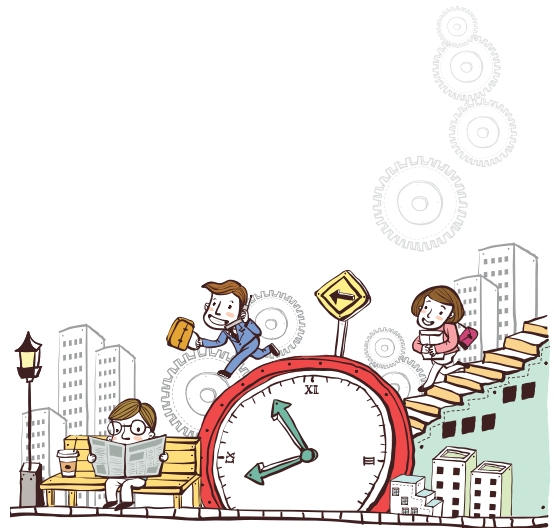
세종시의회, 국회 방문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의 관심과 지원 요청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월 27일, 39만 세종시민의 염원인 세종지방법원 건립 조속 추진을 건의하는 성명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국회를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과 국회교통위원회 간사인 문진석 의원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조기 착공과 충분한 예산확보를 건의하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임채성 의장은 “지난 2020년 6월 강준현 의원이 최초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4년 3개월 만에 통과되는 쾌거를 이루어낸 만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준비와 착공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기본 틀을 갖추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돈 안 드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

김동석 (나성동)

내겐 두 살 터울의 이종사촌 형이 있다. 작은이모네 집이 우리 집과 매우 가까워 중고등학교 시절 가끔 놀러가곤 했다.

어느 날 형이 자신의 좌우명은 "돈 안 드는 일에 인색하지 말라"라며 말한 적이 있다. 그 말이 다소 생뚱맞기도 해서 내심 동의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내가 육십이 넘어 살다 보니, 형의 좌우명을 그냥 지나치다가도 무언가 숨겨진 교훈이 있음을 문득문득 깨닫곤 한다.

돈 드는 일에는 나를 포함해 대부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색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와 같은 인사말은 돈이 전혀 안 드는 일임에도 인색한 경우가 많다. 인사말을 포함해 가족이나 친구, 동료, 이웃에 대한 칭찬이나 격려의 말, 사랑의 표현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돈 안 드는 일이 수도룩하게 많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 그 형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 자주 볼 수 없지만, 형이 말한 좌우명은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내게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홀로 계신 어머니께 이틀에 한 번은 전화하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국경일 태극기 달기 등 앞으로 돈 안 드는 일에 인색한 일이 없기를 오늘도 다짐해 본다.

오늘따라 그 형이 몹시 그립다. 질병으로 몸이 편찮으시다는데 전화를 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안부 인사도 하고 부족하지만 형의 좌우명을 지금껏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는 말도 전할 겸 오랜만에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입법정보

I. 생활법령	60
II. 주요 입법 동향	64
III. 법령 해석 사례	68
IV. 최근 시행 법령	72
V. 타 지자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73



I 생활법령



사례 1

별거 이후에 부부 중 일방이 혼자서 갚은 빚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솔로몬의 재판)

2021년, 길동씨는 아내와 서로 이혼소송을 하던 중에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길동씨는 화물차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 화물차를 사면서 진 빚을 매달 꾸준히 갚아왔습니다. 하지만 빚을 다 갚기도 전에 길동씨 부부는 이혼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별거까지 한 이후에도 길동씨는 혼자서 다달이 화물차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3년이 되었고, 빚은 이혼소송 초반 시점과 비교하여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길동씨의 아내가 2023년 시점의 감소한 빚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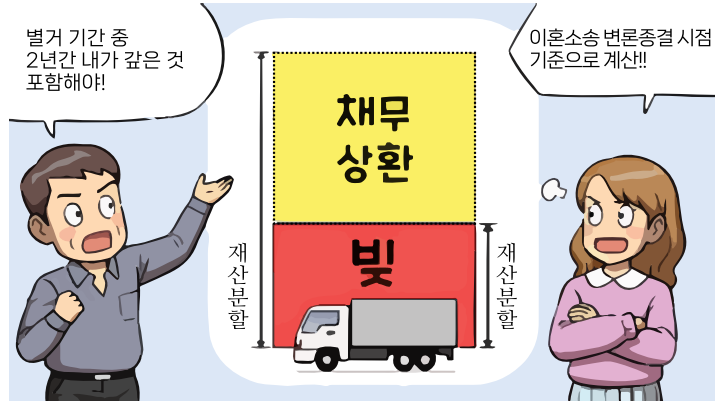
이처럼 별거 시작 이후에 길동씨가 혼자서 갚은 빚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할까요?

- ① **아내 측 변호사** : 우리 법원의 재산분할 제도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즉 판결선고 전 마지막 변론기일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길동씨가 갚아서 줄어든 채무 금액으로 재산분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에 따라야죠.
- ② **길동** : 아내랑 따로 살면서 저 혼자 열심히 일해서 제 돈으로 갚아왔습니다. 아내는 아무런 기여도 안 했는데, 제가 절반 이상 갚은 빚으로 재산분할을 한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열심히 빚 갚은 저만 억울해지는 건데 말이 안 됩니다. 저 혼자 갚은 채무 금액은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정답

정답은 2번

길동 : “아내랑 따로 살면서 저 혼자 열심히 일해서 제 돈으로 갚아왔습니다. 아내는 아무런 기여도 안 했는데, 제가 절반 이상 갚은 빚으로 재산분할을 한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열심히 빚 갚은 저만 억울해지는 건데 말이 안 됩니다. 저 혼자 갚은 채무 금액은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입니다.



위 사례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 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해당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 하였습니다.

- 가.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부부 중 일방 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즉, 어떤 적극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중 일방에 의해 생긴 것으로서 상대방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 나. 한편,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 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 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혼인 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감소하였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으 로 형성한 재산 관계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감소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 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혼인 관계 파탄 시점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위 법리를 종합하여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 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해당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평결일 : 2024년 2월 16일

참조판례 : 대법원 2023. 11. 7. 선고 2019두59349 부당하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례 2

종교적인 이유로 면접 일정을 늦춰달라는 응시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불합격 처리한 국립대 총장의 처분은 위법한 것일까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솔로몬의 재판)

A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류전형에 합격한 나독실 씨는 면접 일정이 토요일 오전으로 정해지자 학교 측에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나독실 씨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해 직장·사업·학교 활동, 공공 업무 및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는 ○○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을 지켜야 했기 때문 인데요.

그러나 학교 측은 나독실 씨의 요청을 거부했고, 면접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나독실 씨에게 불합격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나독실 씨는 위와 같은 처분은 간접적인 차별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① **A국립대 총장** : 입학전형 공고 때부터 면접이 토요일에 시행된다는 점을 공고 했는데, 특정 응시자의 개인적인 요청으로 면접 일정을 변경한다면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칩니다. 면접 일정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불합격 처리한 것은 모집요강에 따른 것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적법합니다.
- ② **나독실 씨** : 면접평가는 지필시험과는 달리 개별 면접이라 시간 변경이 용이하고, 소지품 제출 후 격리된 상태로 면접 순서를 기다려야 하니 제가 준비 시간을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 기회를 박탈하는 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요?

정답

정답은 2번

나독실 씨 : “면접평가는 지필시험과는 달리 개별 면접이라 시간 변경이 용이하고, 소지품 제출 후 격리된 상태로 면접 순서를 기다려야 하니 제가 준비 시간을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 기회를 박탈하는 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요?”입니다.



위 사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면접 일정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불합격 처분을 한 것에 대한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가. 국립대학교 총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의 직접적인 구속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특정 종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된다면 국립대학교 총장으로서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그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지필시험의 경우 문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응시자들이 동시에 시험에 응시해야 할 공익적 요청이 높으므로 특정 응시자에게만 시험일정을 변경하기 어렵지만, 면접평가는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다른 응시자들의 면접시간을 변경할 필요 없이 특정 응시자의 면접시간만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 전 소지품을 제출하고 격리된 상태라면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면접평가 준비 시간을 더 많이 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신자가 입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면접시간을 변경하더라도 그로 인해 제한되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은 신자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면접 일정 변경으로 제한되는 공익보다 나독실 씨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불합격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4년 1월 16일

참조판례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I

주요 입법 동향



01 최근 공포 법령

1. 공연법 (공포 '24. 10. 22. / 법률 제20487호)

- ▶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물을 관람하게 하려는 자가 관람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 ▶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공연물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공연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 ▶ 공연 분야 종사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공연과 관련된 계약을 하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의 근거를 마련함.

2. 우주개발 진흥법 (공포 '24. 10. 22. / 법률 제20478호)

- ▶ 우주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모집하기 위하여는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및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바, 우주항공청장이 우주산업클러스터 또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 ▶ 시·도 교육감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투자진흥지구에서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진흥지구에서 입주하는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02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행정안전위원장)

- ▶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44조제5항 신설).
-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안 제148조의2제2항 개정), 자전거등(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자의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동일하게 정하며(안 제156조제12의2호 신설),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또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148조의2제1항 개정).
- ▶ 음주 측정 거부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필요적 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제도(제82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제80조의2)가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0조의2제1항·제82조제2항·제93조제1항 개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사기 등의 피해 실태 파악, 합성영상등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징벌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유포·확산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II

주요 입법 동향



03 최근 국회 접수 법안 (주요법안)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의원 등 13인)

- ▶ 현행법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포하는 행위 중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액에 처하고 있음.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를 근거로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정치적·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
- ▶ 특히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벌금형 하한액이 5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를 저질러 기소된 당선인 등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최소 25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밖에 없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법정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 이에,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및 제251조 삭제 등).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의원 등 10인)

- ▶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및 그 밖에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 그런데 임신부의 보호를 위한 출산전후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직·휴가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도 중요 근로조건으로, 이를 근로계약에 명시하도록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 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자의 휴가·휴직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신설 등).

04 최근 입법 예고 (주요법안)

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 의원 등 12인)

(의견제출 '24. 11. 22.까지)

- ▶ 최근 음주운전, 주취폭력 등 음주폐해로 인해 국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음주폐해 중 본인의 생명 외에도 상대방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13만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 중 5만 5,000여명은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 ▶ 이에 음주운전 등의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조사·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포함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제25조).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 의원 등 10인)

(의견제출 '24. 11. 23.까지)

- ▶ 최근 화성 동탄과 같은 인구 급증 신도시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통합교육지원청으로는 급증하는 교육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 하지만, 현행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1개 또는 2개 이상의 교육지원청을 두어 시·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지역 내 과밀학급 해소 등 급변하는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 ▶ 이에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명칭 및 위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이 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III 법령 해석 사례



사례 1 질의 (법제처-24-0701 / 회신일자 '24. 11. 4.)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등 관련)

질의요지

-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회 달

-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항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반드시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한 것은,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업무만 전담하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 근로자의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

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에게 반드시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 ▶ 따라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 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 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해석사례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 ▶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 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 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해석사례

III 법령 해석 사례



사례 2 질의 (법제처-24-0660 / 회신일자 '24. 11.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의 범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관련)

질의요지

- ▶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가 포함되는지?

회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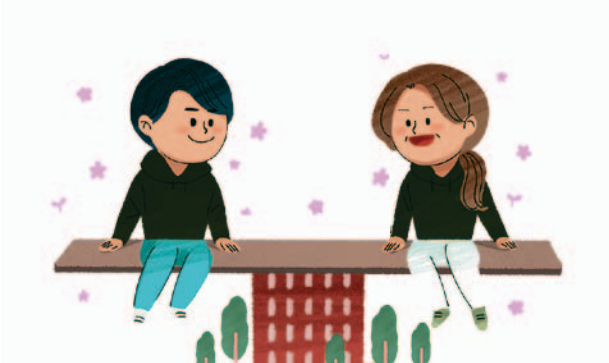
- ▶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에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 ▶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에 따른 보존 서류에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가 포함된다고 본다면 사업주가 채용절차법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 후에 반환 또는 파기하도록 한 서류에 대하여 3년간의 보존 의무를 부과한 것이 되어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와 채용절차법 제11조가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채용절차법의 입법 취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에 따른 보존 서류에 채용절차법에 따른 채용서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채용절차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는 조화로운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 ▶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보존하여야 할 채용에 관한 서류에 그 입법 경위, 작성 주체, 사용목적, 처리방법 등이 상이한 채용절차법에 따른 채용서류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규정 없이 제재 규정의 대상 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 ▶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에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해석사례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 ▶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아울러 「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 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해석사례

IV 최근 시행 법령



최근 시행 법령

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4. 10. 25. 시행)

- ▶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규정을 삭제하며,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에 대한 표현을 인증대체부품에서 품질인증부품으로 변경하고,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며, 자동차 안전·하자심의회위원회에 정보통신기술·사이버보안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의사표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50조 및 제251조 삭제 등).

2.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4. 10. 25. 시행)

- ▶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물순환 왜곡 및 취약성 평가 결과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실태조사의 범위와 시기를 정하고, 물순환 촉진 사업 실시계획에 토지등의 수용·사용 및 보상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4. 11. 1. 시행)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이 되는 노인의 연령을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으로 정하는 등 노인의 연령 및 기준을 정하고, 근로능력과 취업의사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노인 취업 지원에 관한 기준 및 내용을 구체화하며, 노인 친화기업·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노인 취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V

타 지자체 최 근 제 개 정 자치법규



01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24. 11. 11.)

질의요지

「교통안전법」 제3조에 따라 국민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제5조)
- 나. 교통안전 교육(제7조)
- 다. 재정 지원, 지원 제한 및 지도·감독(제9조~제11조)
- 라.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제12조)

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24. 11. 14.)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제4조)
- 나.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제6조)
- 다. 구청장의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제7조)
- 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제8조)
- 마. 식품등 기부 협조 요청에 관한 내용(제9조)
- 바.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제10조)



세종시의회 2025년 상반기 회기 일정 안내

1월 (임시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신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설날	30	31	

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월 (임시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삼일절
2	3 대휴일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0	24 31	25	26	27	28	29

제95회 임시회 : 2.4. ~ 2.14. (11일)
-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조례안 등 -

제96회 임시회 : 3.5. ~ 3.19. (15일)
- 시정질문, 조례안 등 -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식목일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월 (정례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근로절	2	3
4	5 성탄절 어린이날	6 대휴일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월 (정례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현충일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 4월 (예정)
※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기간 : 4.5. ~ 4.24.

제97회 정례회 : 5.20. ~ 6.23. (35일)
- 행정사무감사,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등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 미디어 채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온라인 미디어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가 생중계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는 각종 홍보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서는 간편하고 빠르게 세종시의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https://council.sejong.go.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ouncilsejo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세종특별자치시의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jongcitycouncil/223217463608>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ejongcouncil>

독자 투고 안내

계간 <세종의정>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나 감동적인 사연,
시의회 방청 및 방문을 통해 느낀 점, 계간 <세종의정>이 진열된 사진과 함께
소식지를 읽은 소감, 의회에 바라는 글 등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하겠습니다.

- ☞ 증명사진 및 관련 사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 ☞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보내실 곳 우 편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2층 의정담당관 소식지 담당자 앞
전 화 044.300.7248 **팩스** 044.300.7219
이메일 yjk78901@korea.kr



소식지 구독 신청

세종시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식지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는 시민께서는 아래 경로로 구독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 접속

<https://council.sejong.go.kr/>

홍보관

의회간행물

의회소식지
구독 신청



인터넷방송 보러가기 council.sejong.go.kr

QR코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터넷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